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건립사업 성공 추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발전을 이끌고 전주의 대변역을 앞당긴 전시컨벤션센터를 함께 짓고 운영해 가기로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라감영(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할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방안 등 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재정지원 방안 △행정절차 지원 △전북 MICE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약 3000여원이 투입돼 연면적 8만㎡에 △1만㎡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라감영(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규모의 전시장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춰 조성될 예정이다. 건물 외부에 1만㎡규모의 다목적광장도 조성된다.

전주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행사 개최장소이자, 대규모 국내·외 행사유치 등을

위한 광역기반시설로서 자리매김해 전주의 도시브랜드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다짐들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수시 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최종 행정 관문을 넘어섰으며, 시는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 전시 복합 산업(MICE) 단지 조성을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철거에도 돌입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시컨벤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이를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세계적인 MICE(MICE)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전주가 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인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전시컨벤션센터가 전주민의 시설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설로서 함께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공정 채용문화 조성 노력 인정

전주시설공단,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 이하 인증원)으로부터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증 수여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됐다.

공정채용 인증제도는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하는 모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채용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지원자들이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전문 평가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채용시스템과 채용 운영, 채용 성과 등 3개 부문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3개 부문 합산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특히 최고경영자의 공정 채용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고, 채용

부서의 역할과 의지가 엿보이며,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과정,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공단이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규입사자의 채용 단계별 공정 채용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 전반적으로 공단의 채용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증원은 강조했다.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 채용 시스템을 통해 올해 2차례에 걸쳐 총 48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으며, 27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공채 과정을 현재 진행 중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공정 채용은 우수 인재 채용으로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해 조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조직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활동 이어가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2일 오후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해 열정적인 예산 심사 활동을 이어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 심사 나흘째를 맞아 상하수도본부와 자원순환녹지국, 건설안전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상하수도본부 심사에서는 가압장 운영관리 용역의 중액 사유, 배수관 신설 및 정비공사 원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신규 편성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자원순환녹지국 심사에서는 환경관리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 시민 실천 유도 교육 예산 감소, 지방정원 조성사업 및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대안, 지방정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용호근린공원 야외무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김동현·이남숙·김성규·김세혁·김정명·온혜정·이국·이성국·장병익·최명권·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옥기 기자

“기자촌 재개발 용지 내 후백제 왕궁지 보존해야”

후백제 시민단체 협회 등 전주시장에게 보존 촉구

후백제 시민단체 협회 등은 12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촌 내 후백제 왕궁지 보존을 전주시장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왕조의 분향이라며 왕도이면서 왕조의 태줄인 곳은 전주가 유일하다며 전주가 고도로 지정되어야 온전한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수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기자촌은 4만5000㎡(31.7%)가 왕궁지로 추정되고 후백제 유적이 출토되었으나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속행되고 있다고 한다.

출토 유적은 성벽과 방어시설, 1호 건물지, 폭 4미터에 40미터 길이 정도의 도로 등이다.



후백제 시민단체 협회 등은 12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촌 내 후백제 왕궁지 보존을 전주시장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유일한 후백제 왕궁 유적이므로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한 것은 성급하다며 신라의 월성이나 백제의 왕궁지 어느 곳도 아직 명확히 밝혀진 곳이 없으며 한결같이 고도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다.

만약 이곳이 훼손된다면 후백제의 보물같은 왕궁지 역사는 사라진다고 안타까워 하며 현재 진행중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 와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도 역행하는 기자촌 왕궁지 재개발을 중단하고 보존하고, 후백제 유적 보존 등과 관련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한 후백제 도성인 중광대와 왕궁지인 문화촌을 보존하고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예산 등 보존 노력”을 촉구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아동복지 발전 성금 기부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문필레)는 12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이 전주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는 뜻

을 모아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문필레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 및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다동 엘마트,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0만원 기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지난 11일, 송전동 소재 다동 엘마트(대표 이동호)에서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다동 엘마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3년부터 매해 쌀 10kg 300포씩을 기부해 총 3,000포의 쌀을 기부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다동 엘마트 이동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



비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지속적인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